

공무원 인기 시들... 광주 고시학원가 '울상'

9급 공무원 경쟁률 32년만에 최저 '투자 대비 저임금 직업' 인식 확산 동구 고시학원 수강생 없어 경영난 식당·카페 인근 상가 매출 직격탄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는 학원생들이 없으니, 카페 손님도 확실히 줄었죠. 코로나19 이후에도 장사가 안 돼서 테이블 몇 개를 아예 빼놓기도 했어요.”

1일 찾은 광주 동구의 고시학원 밀집지역. 이곳 고시학원 1층에 자리 잡은 한 카페 직원 이모(32)씨는 “학원들이 모여 있는 상권 내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원생들이 꽤 많았다. 그래서 차 마시면서 공부하라고 독서실형 책상을 마련해 두기도 했다”며 “팬데믹 때 학원에 오는 학원생들이 확 줄면서 매출도 같이 줄었다. 큰맘 먹고 마련한 독서실형 책상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시들해지면서 공무원 채용 시험 경쟁률도 32년 만에 최저치를 보인 가운데 고시학원은 물론 주변 식당, 카페 등의 매출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날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필기시험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이 21.8대1로 지난 1992년(19.3대)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9급 공무원 선발 인원은 4749명으로 총 10만3597명이 지원했다. 최근 5년간 9급 공무원 경쟁률은 하락세를 지속하며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 을 기록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는 전 단위 62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041명보다 804명 줄어 든 수치다.

광주·전남지역 9급 공무원 경쟁률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올해 광주·전남(일반 행정) 경쟁률은 39.6대1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9년 148.6대1 △2020년 67.2대 1 △2021년 43대 1 △2022년 47대 1 △2023년 46.6대 1 등으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돼 취업열기가 높았던 공무원은 최근 들어 젊은층 사이에서 ‘투자 대비 돈을 못 버는 직업’이란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 박모(26)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무원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몇 년에 걸쳐 많은 돈을 들여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투입한 노력에 비해 연봉이 낮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에는 더 좋은 스펙을 쌓아 대기업



이 비 그치면... 봄비가 오락가락한 5월 첫 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신록으로 우거진 교정 내 메타세콰이아 길을 거닐고 있다. 김양배 기자

을 노리는 친구들이 더 많다. 나 또한 공무원보다 지역 중소기업 면접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광주지역 고시학원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동구에서 고시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54)씨는 “학원에 등록하러 오는 사람이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다. 최대 강의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 공무원 취업 인기가 식은 것도 경영난의 이유 중 하나지만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인터넷 강의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며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2년, 3년 정도를 준비하는데 그때 인터넷 강의를 접한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시학원들은 회복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 오늘 본회의서 처리

특별조사위원회 9명 구성 '직권조사·영장청구권' 삭제

여야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

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특별법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쟁점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명을 뒀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이

내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월 통과한 법안과 같다.

특히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사와 검찰청에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두 조항에 대해 독소 조항이라며 삭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감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